

# 마르제악 제도와 그 증거 본문들

우택주\*

## 1. 머리말

오늘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풍습과 사회 제도에 관하여는 롤랑 드보(Rauland de Vaux)의 고전적 저술을 위시해서 그 이후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의 윤곽이 마련되어 있다.<sup>1)</sup> 그러나 구약성서 안에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숨은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의 비약적인 학문적 성과 특히 고고학과 성서 연구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 사회상의 구체적 현장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갖고 본문을 대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현장, 즉 말씀이 선포되거나 형성된 사회적 정황의 자리매김(social location)이 모호하다면, 우리의 성서 본문 이해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실례 중 하나가 마르제악(*marzeah*)이라 불리는 제도이다. 아마도 마르제악이란 단어조차 생소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구약 본문 이해의 불충분함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단 두 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로 이 단어는 성서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제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서론적 시도로서 이것을 언급하는 모든 증거 본문의 검토이다.

이 제도는 구약성서에 오직 2번,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언급되고 있다. 우선, 8세기 예언자 아모스는 사마리아와 시온에 거주하는 지도 계층의 낭비적이고 사치스런 향락적 타락 생활을 비판하는 암 6:1-7의 맥락에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

\*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출강, 구약학.

1)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London: Darton, Longman & Tod, 1961); Lawrence E. Stager,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1985) 1-35; Victor H. Matthews, *Manners and Customs in the Bible*, Rev. ed (Hendrickson Publishers 1996[1988]); Leo G. Perdue, J. Blenkinsopp, J. J. Collins, and Carol Meyers, *Families in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리가 그치리라”(6:7) 하고 예고한다.

6:7a לכן עתה יגלו בראש גלים

6:7b וסר מרזח סרוחים

암 6:7b에서 “떠드는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מרזח *mirzaḥ*이며, 명사 *marzeah*의 구문형이다. 훗날 도시국가 팔미라에서는 이 히브리 단어를 헬라이어 *sumposium*, 즉, 영어의 *symposium*으로 번역한다. 또 표준 개역 영어 성경 (NRSV)은 이를 "revelry"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7세기 유다 왕국의 말기에 예언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렘 16:1-9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특히 16:5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한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로 기록하고 있다.

16:5a כִּי־כֹה אָמַר יְהוָה

b אֶל־תְּבוּא בֵּית מַרְזָח

c וְאֶל־תֵּלֵךְ לְסִפּוּר

d וְאֶל־תִּנְדַּר לָהֶם

e כִּי־אֶסְפְּתִי אֶת־שְׁלוּמֵי מֵאֵת הָעַם־הַזֶּה

f נֶאֱמַר־יְהוָה אֶת־הַחֹסֵד וְאֶת־הַרְחָמִים

렘 16:5b에서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אל־תְּבוּא בֵּית מַרְזָח)”는 명령에 등장하는 “상가(בֵּית מַרְזָח, *bet marzeah*)”의 *marzeah*을 칠십인역은 *thiasos*로 번역한다.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는 후원 신을 섬기고 모이는 종교적 길드 혹은 형제단을 뜻한다. 「표준 개역」 영어 성경에 "house of mourning(초상집)"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마르제악(*marzeah*)은 애곡하는 행위, 즉 상을 당해 곡을 하는 사건과 관련되어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구약성서의 두 증거는 상반된 성격을 띤다. 아모스에게는 흥겹고 시끄러운 술잔치로, 예레미야에게는 상을 당해 슬퍼하는 사건과 결부하여 각각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르제악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실체는 무엇일까? 현재 구약성서 안에서는 더 이상 마르제악이란 단어를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정체에 대해 이 이상 언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구약의 증거가 이렇게 상반되고 극히 제한적인 증거 본문만을 남기고 있는데 반해, 주변의 문화권으로 눈을 돌리면 고대 근동의 여러 곳에서는 이 제도가 비교적 빈번히 언급되고 있으며, 또 상당히 오랫동안 널리 실시되어 온 제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 밖 고대 근동의 증거 자료들을 의지하여 마르제악 제도의 정체를 추적하는 일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마르제악”이란

단어는 초기 청동기 시대(2500년 경)에 해당하는 에블라 문헌에서 시작하여, 우가릿, 페니키아, 엘레판틴, 나바티아, 팔미라, 랍비 문헌, 그리고 주후 6세기 로마 치하의 동요르단 지역인 마데바에서 나온 지도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제도는 삼천여 년 동안에 걸쳐 팔레스틴과 그 주변 지역에서 실행된 것으로서 고대 근동 사회에는 오랫동안 잘 알려진 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서의 마르제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 제도의 정체를 규명하려는 학계의 노력은 금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연구의 성과를 잠시 소개한다면, 아래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증거의 단편성과 불충분, 그리고 학자적인 개념 정의의 불완전 등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논쟁 중이며 구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필자는 마르제악 연구에 관한 현 학계의 상황을 정체 상태로 규정하고 심화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sup>2)</sup>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우선 마르제악이 등장하는 모든 본문의 증거를 소개하려고 한다. 앞으로의 모든 논의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성서 밖의 모든 증거 본문 속에 나타난 마르제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필자가 보는 문제점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마르제악의 어원

마르제악의 어원은 확실치 않다. 우선 구약성서에서 단 2회만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마르제악(*marzeah*)은 동사 어근 *rzh*에 명사를 만드는 *ma-*선행사가 앞에 붙어 있는 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동사 어근 *rzh*의 의미이다.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해법이 제시되었다. 우선 아이스펠트(Otto Eissfeldt)는 동일 어원의 동사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구약에서 두 번은 동사 *rzh I* (소리를 지르다)의 의미로 쓰였고, 성서 밖의 증거들에서는 동사 *rzh II*(함께 결속하다)가 쓰였을 것이라고 제안한다.<sup>3)</sup> 그러나 이 어원 설명은 다른 이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린필드(Jonas Greenfield)는 우가릿의 앓카드 본문에 나타난

2) 우택주, "The *Marzeah* Institution(s) and Rites for the Dead: A Comparative and Systemic Stud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Eighth-Century Prophets," Ph. D. diss., Graduate Theological Union, Berkeley, California, 1998. 제 1장, 2장을 참조하라.

3) Eissfeldt, "Kultvereine in Ugarit," *Kleine Schriften zum Alten Testament V* (Tübingen: J. C. Mohr, 1969) 165-76; Y. Braslavi, "Jeremiah 16:5 and Amos 6:7," *Beth Mikra* 48 (1971) 12-13(Hebrew); *BDB*, 981. 이 제안은 일찍이 David Kimchi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단어들(*marzi'u*, *marza'u*, *marziḥu*)이 통일된 철자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마르제약이 서부 셈족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외래어를 차용한 것이라고 추론한다.<sup>4)</sup> 반면에, 포우프(Marvin Pope)는 “지쳐서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어 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랍어 동사 *rzḥ*를 어원으로 지목하고 *marzaḥ*은 낙타가 지쳐서 쓰러지는 장소로 본다.<sup>5)</sup> 그런 의미에서 이 어원은 마르제약 모임에서 의식을 잃기까지 술을 마셔대다가 결국 자기 배설물 위에 주저앉고 마는 엘신의 행동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sup>6)</sup> 학계의 여론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필자는 위의 세 가지의 어원 설명 중 세 번째 것을-적어도 우가리트의 증거 본문에는-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

### 3. 성서 밖의 증거 본문들

#### 3.1. 에블라 문헌

1980-1981년, 페티나토(G. Pettinato)에 의해 출판된 에블라의 한 행정문서에는 UD *mar-za-u*<sub>9</sub> ITU *iši*, “*Ishu*월, *marzeah*의 날에” 여러 가지 의복을 세 여인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고,<sup>7)</sup> 또 다른 문서에는, Du-da-sa UGULA *mar-za-u*<sub>9</sub>, “*marzeah*의 감독 두다사”가 3벌의 의복을 할당받았다고 기록한다.<sup>8)</sup> 한편으로, *mar-za-u*<sub>9</sub>으로 불리는 축제 때에는 양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sup>9)</sup> 다후드는 *mar-za-u*<sub>9</sub>가 히브리어의 *marzeah*와 어의상의 평행관계를 이룬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sup>10)</sup>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u<sub>9</sub> 음소의 읽기가 불확실하므로 다후드의 제

4) Greenfield, “The *Marzeah* as a Social Institution,” 452.

5) Pope, “Notes on the Rephaim Texts from Ugarit,” 189. 이 주장을 B. Margalit (“The Ugaritic Feast of the Drunken Gods: Another Look at RS 24.258[KTU 1.114], *Maraav* 2[1979-80] 65-120”)과 Robert B.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38)가 수용하고 있다.

6) 아래의 항목 3.2.2.(3) KTU 1.114를 보라.

7) *Tell Mardikh* 75. G. 1372:I-1-v.L3 in G. Pettinato, *Testi amministrative della biblioteca L. 2769-Parte I* (Napoli, 1980) XLV-XLVI, 309 (Edition no. 46). B. B. Schmidt, *Israel's Beneficent Dead: Ancestor Cult and Necromancy in Ancient Israelite Religion and Tradition* (Tübingen: J. C. Mohr, 1994) 22-23에서 重引.

8) *Tell Mardikh* 75. G. 1443: XI. 1-3.

9) *MEE*(=Materiali Epigrafici di Ebla) 10 no. 1. 참조. Mark E. Cohen, *The Cultic Calendars of the Ancient Near East* (Bethesda, Maryland: CDL, 1993) 34.

10) M. Dahood, “Love and Death at Ebla and their Biblical Reflections,” in *Love & Death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Marvin H. Pope*, ed. J. H. Marks and R. M. Good (Guilford, 1987) 99.

안에 유보적이다. 그러나, 에블라 문헌의 *mar-za-u*<sup>9</sup>가 마르제악과 동일한 제도였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증거본문으로부터는 이것이 모종의 회합(association)이란 사실 밖에는 아무 것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 밖에 술잔치를 다루는 다른 본문에서도 의복을 신에게 드리는 것을 볼 때, 의복 증정은 당시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3.2. 우가릿 문헌

우가릿(현대, 아랍어 지명으로 라스 샴라)은 지중해 동부 북부 시리아 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로서 우가릿 왕국의 수도였다. 이 왕국은 주전 1600-1300년 어간에 존재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의 토착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들을 제공해 준다. 이 도시에서 발굴한 여러 문헌들은 다양한 정황과 함께 마르제악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서 마르제악 제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언급할 후대의 팔미라 문헌 증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우가릿에서 나온 증거는 앗카드어와 우가릿의 알파벳 두 종류로 기록되어 있다. 앗카드어 본문은 RS 14.16, RS 15.60, RS 15.88, RS 18.01 등이며 우가릿 알파벳 본문은 KTU 4.399, KTU 4.642, KTU 3.9, KTU 1.114, KTU 1.21 등이다.

#### 3.2.1. 앗카드어 본문

##### (1) RS 14.16

여기서는 “마르제악의 사람들”( *awilê ma-ar-zi-h* )이란 표현이 문장 서두의 공백 다음에 나타난다. 이런 단편성 때문에 이 본문의 성격을 알 길이 없으나 끝머리에 중인 목록(총 13-14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종의 법률 문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000 세겔(*lîm* 단위)이<sup>11)</sup>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계약상의 액수인지, 혹은 소송 액수인지 혹은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sup>12)</sup> 그러나 이 액수를 마을 당, 1-5 세겔 혹은 최고 300세겔을 징수했다고 기록한 어느 세금 문서의 액수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sup>13)</sup> 이로 미루어 이 단체는 부요한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

11) 참조. Theodore J. Lewis, *Cults of the Dead in Ancient Israel and Ugarit*(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89) 81, n. 5. 과거에 Ch. Virolleaud는 1 *lîm*을 10,000 세겔로 환산했으나, Chicago Assyrian Dictionary(CAD L, 197 s.v. *lîmu* B)는 이를 1000세겔로 교정하고 있다

12) J. L. McLaughlin, "The *marzeah* at Ugarit: A Textual and Contextual Study," *Ugarit Forschung* 23 (1991) 265f.

13) M. Helzer, *The Rural Community in Ancient Ugarit* (Wiesbaden: Reichert, 1976) 30-34.

다.

(2) RS 15.88

이 본문은 니크맛두(Niqmadu)의 아들이며 우가릿의 왕인 니크메파(Niqmepa)의 인장이 찍힌 왕실 문서로서 “마르제약의 사람들의 집”(bît amil<sup>M</sup> mar-za-i, line 4)이 마르제약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mâš<sup>M</sup>-šū-nu, lines 6-7)에게 영원한 소유가 됨을 확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맥래프린은 마르제약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집합체”로 이해한다.<sup>14)</sup> 루이스 역시 중세의 길드 같은 모종의 조직(organization)일 것으로 추정한다.<sup>15)</sup> 맥래프린은 마르제약의 회원 자격의 요건과 자격이 세습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들의 후손”이란 생물학적인 후손이라기보다 그 회(會)를 이어가는 후대의 회원들을 말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3) RS 15.70

이 본문은 RS 15.88보다 일련번호가 빠르지만 니크메파의 아들인 암미쉬타므루(Ammishtamru) 왕이 인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상으로는 더 후대이다. 이것은 한 왕실 관리(<sup>amuk</sup> rābiṣu)가 “샤트라나(Šatrana)의 마르제약의 사람들의 집”(bît amil<sup>M</sup> mar-ze-i ša- at- ra- na)을 취하고 그 대신 이브라무지(Ibramuzi)란 사람의 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제약이 샤트라나 신과 같은 특정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다는 사실이다. 마르제약이 재산을 세습한다는 사실은 재차 확인된다. 맥래프린은 RS 15.88과 현 본문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만일 두 본문이 동일 마르제약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집을 보상하는 조치는 후대의 우가릿 왕이 선왕의 칙령을 따른 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만일 서로 다른 마르제약 제도를 언급하는 것이라면 소유 재산의 손실을 보상 처리하는 데서 엇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분석한다.<sup>17)</sup> 다시 말해서, 마르제약은 그 소유권의 처분에서 통치자의 인준을 얻을 만큼의 인지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Dmt, Ary와 Ykn'im 마을에서 각각 1-5세겔을 정수한 기록이 있고, 다른 문서에서는 Šbn 마을에서 최고 300세겔을 정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4) *Op. cit.*, 266.

15) Lewis, *Cults of the Dead*, 83.

16) 친족(kinship) 개념의 이중적(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차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Cf. C. Harris, *Kinship*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27-46.

17) McLaughlin, “The *marzeah* at Ugarit,” 267.

## (4) RS 18.01

이것은 도시국가 시안누(Siyannu)의 왕 파디아(Padiya)의 인장을 지니고 있는 문헌으로서, 슈크시(Šuksi) 마을에 있는 후리안 여신 이쉬타르에게 바친 포도원이 “아리(Ari) 마을(도시국가)의 마르제악의 사람들”과 “시안누 마을(도시국가)의 마르제악의 사람들” 사이에(*beri amil<sup>M</sup> mar-zi-i ša<sup>al</sup> a-ri u be-ri amil<sup>M</sup> mar-zi-i š<sup>al</sup> siyani*) 나누어짐을 적고 있다. 이 본문은 영토 분규의 조정에 관심하고 있는데, 특히 마르제악이 특정 지역과 결부되어 있음을-한 마을(도시국가)에 하나씩이건<sup>18)</sup> 혹은 그 이상이건<sup>19)</sup>-알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은 여신 이쉬타르에게 포도원이 바쳐졌다는 점인데,<sup>20)</sup> 이는 이쉬타르가 마르제악의 수호신이란 점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여지듯이, 마르제악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과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3.2.2. 알파벳 본문

## (1) KTU 4.399 (RS 18.138)와 4.642 (RS 19.103)

KTU 4.399는 개인들이 소유한 밭(*šd*)의 등기부 같은 성격을 지닌 본문으로서 여덟 째 줄에 *bn.mrzḥ*란 표현이 나온다.<sup>21)</sup> 이것은 재력이 있는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마르제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가리킨다.<sup>22)</sup> 그 밖의 사실은 알 수 없다.

KTU 4.642은 심하게 손상된 본문으로서, 재구성한 것까지 포함하면 *mrzḥ*란 단어가 네 줄(lines 2, 4-7)에 계속해서 다섯 번 언급되고 있다.<sup>23)</sup> 또, 셋째 줄의 *šir šd kr[m]*는 포도원의 소출을 말한다. 특히, 아이스펠트는 넷째 줄의 ‘n 다음에 t를 복구하여 이 단어를 여신 아낏(Anat)으로 읽기를 제안한다.<sup>24)</sup> 그럴 경우, *mrzḥ* ‘nt는 “아낏의 마르제악”이란 표현이 성립한다. 이는 마르제악이 특정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다는 주장과 그리고 문맥으로 미루어 포도원과 마르제악 사이의 상관성을 증명한다. KTU<sup>2)</sup>는 이 본문의 양식을 특정 종교 집단의 혜택을 위한 (혹은 보유 토지의 이전?)기록으로 이해한다.

18) J. C. Greenfield, "The Marzeah as a Social Institution," *Acta Antiqua* 22(1974) 453; Lewis, *Cults of the Dead*, 84.

19) *Op.cit.*

20) O. Eissfeldt ("Kultvereine in Ugarit," *Ugaritica* VI [1969] 192)는 이 주장에 회의적이다.

21) M. Dietrich, O. Loretz, and J. Sanmartín, *The Cuneiform Alphabetic Texts from Ugarit, Ras Ibn Hani and Other Places, KTU: second, enlarged edition* (Münster: Ugarit-Verlag, 1995) 364-65.(이하에서 KTU<sup>2)</sup>)

22) McLaughlin, "The *marzeah* at Ugarit," 268.

23) KTU<sup>2</sup> 439-40를 보라.

24) Eissfeldt, "Kultvereine in Ugarit," 192.

(2) KTU 3.9 (RS 1957.702)

(표면)

샤무마누(šmmn)가 그 집에 세운 marziḥ

이제 내가 곳간(storeroom)을 너희를 위해 마련했다.

내가 너희를 내 집에서 쫓아내면 내가 50 세겔을 지불하겠다

(이면)

샤무마누가 관장(rb)이다. marziḥ 사람들이 (man of marziḥ) 샤무마누에게  
이르기를, “돈, 곧, 네 소유 안의 한 세겔을 달라”고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그는 두 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증인: Udrmn의 아들 'Thirašpu와 Sigilda의 아들 'Abdinu.

패트릭 밀러에 의해 처음 출판된 이 본문은 전면에서 “샤무마누가 그의 집에 세운 마르제약”(mrzḥ dḡny šmmn bbtw)으로 시작하는데 상대방을 쫓아낼 경우 50 세겔의 공탁금(혹은 임대료)을 환불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후면에서는 샤무마누가 우두머리(rb)로 묘사되며, 마르제약의 사람들(mt mrzḥ)이 1세겔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 2 세겔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과 두 명의 증인이 수록되어 있는 계약서이다.<sup>25)</sup> 여기서 우리가 명사형, 우두머리(rb)로 읽은 단어를,<sup>26)</sup> 혹자는 히브리어 ryb (“소송을 걸다”)에 해당하는 동사형으로 보고 본문을 법률 소송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sup>27)</sup> 본문의 나머지 내용이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 집과 위의 앓카드어 본문들에 나타난 “마르제약의 집 (bt mrzḥ)”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문제는 마르제약 자체가 건물로서의 장소 개념인가 아니면 회합인가 하는 것인데 내용상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sup>29)</sup> 50세겔의 공탁금이 상당히 큰 액수임도 주목할만하다. 이 본문에 나타난 마르제약은 특정인을 우두머리로 삼아 회합을 관리하게 하였고(여기서는 샤무마누) 그 회합을 위한 별도의 건물(집에 연결된 일부이든, 별채이든)이 필요했으며, 그리고 돈이 이 제도와 그것의 유지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다. 덧붙여, 마르제약 회원들은

25) Patrick. D. Miller, "The MRZH Text," *The Claremont Ras Shamra Tablets* (Roma: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1) 37-49.

26) Also R. E. Friedman, "The MRZH Tablet from Ugarit," *Maarav* 2 (1979-80) 187-206; McLaughlin, "The marzeah at Ugarit," 270.

27) M. Dahood, "Additional Notes on the Mrzḥ text," *The Claremont Ras Shamra Tablets* (ed. L. R. Fisher; AnOr;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1) 54; B. Halpern, "A Landlord-Tenant Dispute at Ugarit?" *Maarav* 2 (1979-80) 131, 133.

28) Miller, "The MRZH text," 43.

29) McLaughlin, "The marzeah at Ugarit," 270.

아마도 (대부분) 혈연 관계가 없는 회원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 (3) KTU 1.114 (RS 24.258)

(표면)

(1) 엘은 그의 집에서 희생을 잡고, 그의 (2) 궁전 안에서 잔치를 마련했다. 그는 신들을 잔치로 초대했다. (3) 신들은 먹고 마셨다. (4)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새 술을 만취토록 마셨다. 야리후는 (5) 그의 뿔을 챙기는데 개처럼 (6) 식탁들 밑에서 부스러기들을 긁어모으고 그를 알아보는 신은 (7) 그를 위해 음식을 내어주고, 그를 몰라보는 신은 (8) 식탁 밑에서 막대기로 때렸다. (9) 그는 아쉬타르트와 아낫에게 이르렀다. (10) 아쉬타르트는 그를 위해 *nšb*를, (11) 아낫은 어깨(살)을 마련해 주었다. (12) 엘 집의 문지기가 그 둘을 모두 책망했다. “보라! 너희가 개에게 *nšb*를 준 것이 아니냐, (13) 똥개에게 어깨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 (14) 그는 그의 아버지를 책망했다. 엘은 자리를 잡고 앉아, (15) 그의 [ ]을 채소집했다. 엘은 그의 *mrzlh* 잔치에 앉았다. (16) 그는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새 술을 만취토록 마셨다. (17) 엘은 자기 집으로 갔고, (18) 그 뜰에 이르렀다. *Tkmn*과 (19) *Šnm*이 그를 부축했는데 *Hby*, (20) 두 뿔과 꼬리가 달린 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21) 그는 그의 똥과 오줌 속에 주저앉았다. (22) 엘은 지하로 내려가는 자(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아낫과 (23) 아쉬타르트는...찾으러 다니고 있었다.

(이면 요약: 23-31행까지의 내용에서, 아낫과 아쉬타르트는 엘의 숙취를 제거할 묘약을 찾아온다)

이제껏 본 본문들이 범람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본문은 신들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본문에서 우가릿의 최고신인 엘(*'il*)은 짐승들을 잡아 자기 집에 연회를 베풀고 불특정 다수의 신들을 초대하였고 이에 신들은 취하도록 먹고 마신다(*tštn y'd šb' trt 'd škr. line 3-4*). 엘은 그의 마르제악에 앉은 채로(*'il ytb bmrzlh, line 15*), 먹고 술에 취하도록 마신다(*yšt yn 'd šb' trt 'd škr. line 16*). 최고신 엘은 고주망태가 된 후 자기 처소로 돌아가다가 헛것(뿔과 꼬리가 달린 괴물)을 보고는 자신의 배설물 위에 허우적대다가 죽은 자처럼 주저앉아버린다. 후면은 상당히 손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신 아낫과 아쉬타르트가 아마도 숙취 제거용인 것으로 보이는 어떤 약을 구해온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sup>30)</sup> 이

30) M. Pope, "The Cult of the Dead at Ugarit," in *Ugarit in Retrospect: Fifty Years of Ugarit and Ugaritic*, ed. G. D. Young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177-78. 본문의 최근 연구들을

신화론적 본문의 내용과 성격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대표적인 견해를 보면, 포우프는 이 신들의 술잔치가 “바알의 죽음을 기리는 밤샘으로서(a wake for Baal)”<sup>31)</sup> 우가릿의 장례제의가 반영된 신들의 일화로 해석하고, 마르제악이란 “죽은 자를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이 주목적인 동우회(a sodality devoted to feasts for the dead)”로 이해했다.<sup>32)</sup> 반면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장례에 관한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이 견해를 비평하면서, 마르제악을 단순한 신들의 술잔치(a drinking banquet)일 뿐이라고 제한적인 정의를 내린다.<sup>33)</sup> 이 신들의 일화에 나타나는 마르제악의 성격이 술잔치에 역점이 주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례 제의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보다는, 맥락상 침묵하고 있다고 보는 신중론도 제시되고 있다.<sup>34)</sup> 그 이유는 이어서 다룰 KTU 1.21에서 마르제악은 죽은 자를 초혼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엘 신의 마르제악에서 그가 주로 한 행동은 음주, 그것도 과음이었다. 이 술잔치는 문맥상 엘 신의 궁전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엘은 술 취한 뒤 자기 처소로 돌아간다). 여기서, “엘이 마르제악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장소를 가리키는지 혹은 회합을 주재한다는 의미인지가 논쟁될 수 있다. 양자 모두 가능하지만 우가릿 구문 *ytb b*의 관용어법상 장소라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sup>35)</sup> 본문의 마르제악은 예레미야 16:5의 “마르제악의

---

위해, C. E. L'Heureux, *Rank among the Canaanite Gods: 𐎎𐎗 Ba'al and the Rephaim* (Missosula: Scholars Press, 1979) 159-69; B. Margalit, "The Ugaritic Feast of the Drunken Gods: Another Look at RS 24.258(KTU 1.114)," *Maraav* 2 (1979-80) 65-120; K. J. Cathcart and W. G. E. Watson, "Weathering a Wake: A Cure for Carousal. A Revised Translation of Ugaritica V Text 1," *Proceedings of the Irish Biblical Association* 4 (1980) 35-58; D. Pardee, *Les textes para-mythologiques de la 24<sup>e</sup> campagne (1961)* (Paris: 1988) 13-74를 보라.

31) Pope, "The Cult of the Dead" 178.

32) Pope, "Notes on the Rephaim Texts from Ugarit," in *Essays on the Ancient Near East in Memory of Jacob Finkelstein*, ed. M. Ellis (Hamden: 1977) 166. 또한 Idem, "A Divine Banquet at Ugarit," i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and Other Essays: Studies in Honor of W. F. Stinespring*, ed. J. M. Efri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72) 170-203을 보라.

33) D. B. Bryan, "Texts relating to the *Marzeah*: A Study of an Ancient Semitic Institution," Ph.D. dis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73) 209; McLaughlin, "The *marzeah* at Ugarit," 281; Schmidt, *Israel's Beneficent Dead*, 66; Pardee, "Marzihu, Kispu, and the Ugaritic Funerary Cult: A Minimalist View," in *Ugarit, religion and cultur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lloquium on Ugarit, religion and culture. Edinburgh, July 1994: Essays presented in honor of Professor John C. L. Gibson*, eds. N. Wyatt, W. G. E. Watson and J. B. Lloyd (Münster: Ugarit Verlag, 1996) 273-87.

34) Lewis, *Cults of the Dead*, 84. 그는 마르제악의 장례관련 설에 관한 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 "본문은 단순히 마르제악의 목적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5) McLaughlin, "The *marzeah* at Ugarit," 271.

집(*bēt marzeah*)”처럼 어떤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4) KTU 1.21

KTU 1.20-22 = CTA 20-22 (Rapiuma Text)<sup>36)</sup>

KTU 1.20 i

(화자:)

[그 혼]백들(rapiuma)은 잔치할 것이요, 그 영들은 [ 칠]배나, []고대의 죽은 자들처럼 [] 모임이 가까오자, [] 여름 잔치날. [그 혼]백들은 먹을 것이요, [그 ] 마실 것이다. ... []의 신, []을 책임지는 ...[]의 희생제사를... [...]

KTU 1.20 ii

(El: ) [내 집에서 일곱

내 궁전에서 여덟

(화자:)

그 혼[백들]이(shades) [그의 성소(shrine)로] 서둘러 간다

그의 성소로 그 영들이(spirits) 서둘러 간다

그들은 [전차들을] 잡아 매고, 그들은 말들에 안장을 지우고, [그들은 기치를] 높인다 그들은 전차에 올라, 말들을 몬다. 그들은 하루 이틀 사흘째 저녁을 여행한다

그 혼백들은 타작마당에, 영들은 밭에 당도한다

그때 [Rapiu의 사람], 영웅이며, 하르남 사람인 다니엘이 말한다:

“[혼백들이] 타작마당에 있다. 영들이 밭에 있다. 찾아온 이들을 식사 대접하라 [고인들(?)을] 잡숫게 하라, []사과와 진미를 [...]

KTU 1.21 ii

(엘: ) ‘내 잔치(*mrz*)’로 오라, 내 집으로 출발하라, [오 혼백들이여]

청컨대 내 [집][으로], 내 [궁전][으로 그대들을] 부르노라’

(화자:)

그의 성소로, 오 혼백들이여, [서두르라], [그의 성소로] 서두르라, 오 영들이여.

(엘) []내 잔치로(*mrz*)’

36) Lewis, "Toward A Literary Translation of the Rapiuma Texts," Ugarit, religion and culture, eds by. N. Wyatt, W. G. E. Watson and J. B. Lloyd (Münster: Ugarit-Verlag, 1996) 124-31.

그 때, 오 혼백[들]이여 [] 내 목자들 같이  
 이제 나는 하루 이들 사흘을 여행하여 내 집에 이를 것이다. 나는 내 궁전에  
 도착할 것이다  
 다시 엘이 말했다.  
 ‘내 [잔]치로(*mrz'*) [오라], 내 집으로 출발하라, 오 혼백들이여  
 [청컨대 내 집]으로, 내 [궁전으로] 그대들을 부르노라  
 (화자):  
 그의 성소로, 오 혼백들이여, [서두르라] 그의 성[소]로, 서두르라, 영들아. [...]

KTU 1.22 ii

(엘:) ‘세[째]날에 [내가 내 집에 이를 것이다]. [나는] 내 궁전에 [도착할 것이다]  
 [다시 엘이 말했다 ‘내 잔치로 오라] 내 집으로 출발하라, 오 혼[백들이여]  
 [청하노니 내 집으로] 나는 [내 궁전으로 너를 부르]노라’  
 (화자:) 그의 성소로, 오 혼[백들아, 서두르라], [그의 성소로], 서두르라, 오 영들  
 아.  
 바알의 용사들아, 아낫의 [용사들아  
 (엘:) ‘[오 혼백들아 내] 집으로 출발하라, [내 집으로] 청한다. 내가 내 궁전으로  
 [너희를 부른다].

여러 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이 본문들은 이야기의 맥락이나 선후 관계에 대해 논의의 소지가 남아 있지만, 루이스의 본문 재구성과 그의 번역에 따르면, 엘 신이 르파임을 그의 잔치에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한편, 초대하는 자가 엘 신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다. 엘 대신에 잃어버린 아들 아캇(Aqhat)을 찾아나선 다넬(Danel), 혹은 다니엘(Daniel) 왕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sup>37)</sup> 이 본문의 논의에 더욱 중요한 문제는 르파임(*rpum=rapiuma*)의 정체와 “내 잔치(*mrz'*)로 오라”는 문구에 나오는 *mrz'*란 단어와 *mrzh*의 동일성 여부이다.

르파임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르파임의 정체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은 KTU 1.161(RS 34.126)이다. 이것은 우가릿의 왕실 장례문인데, 후계자 암무라피 3세가 선왕인 니크맛두 3세의 임종시에 행하는 장례 예식에서 르파임을 초혼하여 잔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축복을 빈

37) K. Spronk, *Beatific Afterlif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AOAT 219 (Neukirchen-Vluyn: Neukirchner, 1986) 169. 이 견해는 설득력이 있지만, 본문의 글자 간격이 너무 협소하여 현재의 i-l에 d-n-을 채워 넣어 d-n-i-l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반론에 부딪힌다.

다.<sup>38)</sup> 이에 근거하여, 대체로, 르파임을 “죽은 조상들의 혼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sup>39)</sup> 이들 르파임이 전쟁 용사로 불리고 있는 것과 전차에 타고 말을 모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전의 신분을 짐작케 한다. 그들은 생전의 전쟁 영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문제는 [m]rz'y와 marzeah와 일치성 여부이다. 두 단어의 불일치를 강변하는 데니스 파르디는 우가릿의 글씨 /h/와 /' /는 상호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순수한 사변에 불과하다고 논박한다.<sup>40)</sup> 그러나 현재 우가릿의 음운론과 정사법은 이런 결론에 제동을 건다. 예를 들어, 무성의 /h/은 /r/를 포함한 단어에서 유성의 /g/과 교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가릿 후두음의 철자법칙이 모호한 까닭으로 음운론이나 필사법에 의존하는 파르디의 반박 역시 근거를 상실한다. 오히려,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개연성 있다. 그럴 경우, 이 단어는 마르제악과 동일한 단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은 마르제악이 죽은 자를 위한 제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해 준다.

### 3.3. 트랜스 요르단 정착지 본문(주전 7세기)

보드레이(P. Bordreuil)와 파르디에 의해 1991년에 출판된 이 본문은 두 줄로 기록되어 있다: “1)그래서 신들은 [elohim]은 사라(Sarah)에게 말했다. 가라사대, ‘마르제악, 멧돌과 2) 집은 네 것이다 왜냐하면 이샤(Yisha)가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밀카(Milka)가 제 삼재[보증인]이다.”<sup>41)</sup> 여기서 마르제악은 양도가 가능한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아마도 어떤 단어의 환유어(metonym)로 쓰인 것 같다. 본문의 맥락이 너무 짧아 여타의 논의가 곤란하다.

38) 유사한 유형의 문헌을 메소포타미아의 *kispu* 본문으로 간주되는 “함무라비 왕조의 계보”(Genealogy of the Hammurabi Dynasty=GHD)에서 볼 수 있다. 참조. J. J. Finkelstein, “The Genealogy of the Hammurabi Dynasty,”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20(1966) 95-118.

39) 참조 J. N. Ford, “The ‘Living Rephaim’ of Ugarit: Quick or Defunct?” *Ugarit-Forschungen* 24 (1992) 73-101; Lewis, *Cults of the Dead*, 49-50. 이를 가장 잘 예증하는 본문은 Šapšu 텍스트라고 부르는 KTU 1.6.44b-49이다. 거기서는 *rpum*이 신들을 가리키는 *ilynm*, *ilm*, 그리고 *mtm* 같은 단어들과 평행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단어인 *mtm*은 “죽은 자”를 뜻하고 있기에, *rpum*을 “죽은 혼백”으로 해석한다(참조. J. F. Healey, “Death, Underworld and Afterlife in the Ugaritic Texts,” Ph.D. diss.[The University of London, 1977] 192-93; Lewis, *Cults of the Dead*, 36, n. 157).

40) D. Pardee, “Marziḥu, Kispu, and the Ugaritic Funerary Cult,” 278, n. 6.

41) Bordreuil and Pardee, “Le papyrus du marzeah (Planches VII-X),” *Semitica* 38 (1990) 52. 괄호는 필자의 것.

### 3.4. 페니키아 본문

마르세이유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 세금 기록표(Tariff) (주전 3세기 혹은 2세기 후반; =KAI 69.16)는 카르타고가 원산지인 석판에 성전세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sup>42)</sup>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희생제사와 제물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사장 뭇과 제사자가 차지할 몫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표에 “신(들)의 각 마르제약”(w kl mrzḥ 'lm)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프란츠 로젠탈 (Franz Rosenthal)은 “신을 위한 연회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든”으로 번역한다.<sup>43)</sup>

다른 나머지 한 페니키아 본문(주전 96년 혹은 98년; =KAI 60.1)은 아덴의 항구인 피레이우스의 시돈 식민지에 세워진 기념 비문으로서, “시돈 사람의 제 14년에 마르제약의 제 4일째”(b ym 4 l mrzḥ bš 14 l 'm ṣln)란 문구로 시작한다.<sup>44)</sup> 이 본문은 마르제약이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제 4일째”란 표현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일주일?)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한 청동 대접(주전 4세기)에는 페니키아어로 “두 잔을 우리가 샤마쉬의 마르제약에게 드립니다”(qb'm 'nḥn 'rbt lmrzḥ šn š)라고 기록된 본문이 출판되었다.<sup>45)</sup> 이 대접은 편평하고 넓어 부피가 크다. 이런 형태의 대접은 메소포타미아의 조각 그림에 흔히 발견되는데, 주전 9세기 경의 앗수르 수도 니느웨에서 나온 양각 그림에는 앗수르바니팔 왕이 연회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대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sup>46)</sup> 미칼로프스키는 제의 장면 묘사에 이런 형태의 마시는 그릇을 이용하는 것이 특정 신에게 복종과 순종의 서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47)</sup> 이 문장은 비록 짧지만, 마르제약과 그 수호신 샤마쉬, 그리고 대접의 크기는 다량의 음주를 전제함을 보여준다.

### 3.5. 아람어 본문들

#### 3.5.1. 엘레판틴 본문 (Cairo Museum 35468a; 주전 5세기경)

엘레판틴에서 나온 한 도편에 아람어로 잇토(Ito)란 사람이 아샤이(Ashai)에게 마르제약의(을 위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mrt l 'šyn 'l ksp

42) Bryan, "Texts relating to the Marzeah," 159.

43) ANET, 657.

44) *Ibid.*, 164.

45) N. Avigad and J. C. Greenfield, "A Bronze *phialē* with a Phoenician Dedicatory Inscription," *Israel Exploration Journal* 32 (1982) 118-28.

46) Cf. Avigad and Greenfield, "Bronze *phialē*," 123.

47) P. Michalowski, "The Drinking Gods: Alcohol in Mesopotamian Ritual and Mythology," in *Drinking in Ancient Societies: History and Culture of Drink in the Ancient Near East. Papers of a Symposium held in Rome, May 17-19 1990*, ed. L. Milano (Padova: Sargon srl, 1994) 36-37.

mrzḥ'). 이에 대해 포르텐(B. Porten)은 잇토가 상조회의 장으로서 회원인 아샤이에게 고인을 기념하는 잔치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48)</sup> 그러나 본문의 단편성 때문에 이곳의 마르제악이 장례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sup>49)</sup>

### 3.5.2. 나바티안 본문 (주전 1세기 경)

구스타프 달만이 출판한 한 나바티아 본문은 “와키헬의 아들 오바이두와 그의 동료들, 오보다스 신의 마르제악”(wqyh'l wḥbrwḥy mrzḥ 'bdt 'lh')이라고 쓰여있다.<sup>50)</sup> 이곳의 마르제악이 장례와 관련이 있는지는 빈번히 논의되곤 하였는데, 문제는 오보다스의 정체에 달려있다. 연관이 없다고 보는 브라이언은 오보다스가 신이라면 두샤라(Dudhara), 벨(Bel)과 다른 신들처럼 마르제악의 수호신이 아닐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sup>51)</sup> 류류스는 오보다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기에 수호신이 된 것이라고 논한다.<sup>52)</sup> 그러나 나바티안 왕들은 오보다스 1세로부터 시작해서 사후에 정기적으로 신격화되었으므로, 이곳의 오보다스는 “죽은 조상”으로 볼 수 있다.<sup>53)</sup> 그래서, 본문의 마르제악은 장례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또, 네게브와 나베는 페트라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아브닷('Abdat)이란 지역에서 발견한 여러 단편적인 비문들을 출판하였다.<sup>54)</sup> 이들은 이 지역에 댐을 건설한 뒤 기념적 제의를 드린 후 세운 것 비문들로 보인다. 여기에는 “마르제악의 장”(rb mrzḥ'), “마르제악의 회원들”(bny mrzḥ'), “두샤라 신의 마르제악”(mrzḥ' dwš') 등의 표현들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도시문화권에서는 두샤라 신을 마르제악의 수호신으로 섬긴 것과 회원이 있는 모임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 3.5.3. 팔미라 본문들

마르제악을 다루는 팔미라 본문들은 광범위하게 수집되었고 널리 연구되었

48) B. Porten, *Archives from Elephantin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184.

49) Lewis, *Cults of the Dead*, 90.

50) G. Dalman, *Neue Petra-Forschungen und der heilige Felsen von Jerusalem* (Leipzig: Hinrichs, 1912) 92-94.

51) Bryan, "Texts relating to the Marzeah," 226.

52) L'Heureux, *Rank among the Canaanite Gods*, 209.

53) Lewis, *Cults of the Dead*, 90f. n. 47. 또한 P. C. Hammond, *The Nabateans-Their History, Culture and Archeology* (Paul Åmström Förlag, 1973) 104를 보라.

54) A. Negev, "Nabatean Inscriptions from 'Avdat (Oboda)" *Israel Exploration Journal* 11 (1961) 127-38; *IEJ* 13 (1963) 113-25; J. Naveh, "Some Notes on Nabatean Inscription from 'Avdat'," *IEJ* 17 (1967) 187-89.

다.<sup>55)</sup> 마르제악이란 단어는 봉헌 비문들과 세금 기록표들에 나타난다. 여기서도 조직의 우두머리를 “*rb mrz h*”(Gk symposiarchēs)으로, 회원을 “*bny mrz h*”으로 부른다. 어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55년 티스리 월, ...의 아들인 야르카이 아그리파(Yrhy ‘Grp’)가 마르제악의 회장(*rb mrz h*)일 때, 이 신들을 섬겼고 한해 내내 신점(*qsm*)을 주관했고 제사장들을 위하여(*lkmry*) 자기 집에서 한해 동안 묵은 포도주를 내어왔다.”<sup>56)</sup> 또 다른 곳에서는 “벨 신의 제사장들의 마르제악을 주관하는 동안”(“*brbnwt mrz hwt dy kmry bl*)이란 표현도 등장한다.<sup>57)</sup> 또 다른 본문에서는 “345년 쉘밧 월에 마르제악의 이 회원들이 그들의 신인 아그리볼(Aglibol)과 말라크벨(Malakbel)을 위해 이 제단을 건립했다”(“*[byr h] šbt šnt 345 ‘lt’ dh [‘bdw]. [bny m]rz h ‘ln l’glbw mlkbl ‘lh[yhwn]*”).<sup>58)</sup>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며칠 씩 계속되는 정기 축제를 말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팔미라의 마르제악 제도는 음주와 관련이 있고, 주관자가 있었으며, 며칠씩 열린 잔치였음을 알 수 있다.

### 3.6. 랍비 문헌

마르제악을 다루는 랍비 문헌은 놀랍게도 암 6:7이나 렘 16:5보다도 식덤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바알브올 신을 섬긴 죄)를 기록하고 있는 민 25장에 집중하여 나타난다. 이들 중, Targum Pseudo-Jonathan과 Sifre Numbers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마르제악에 초대되었을 때 발생했다고 해석한다. 민 25:2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에 Targum Pseudo-Jonathan은 “백성이 먹고” 다음에 “그 백성이 그들의 *mrz hn*에서(*bmrzy h yhw n*) 먹었다”를 첨가하며, Sifre Numbers 131은 아예 “그 여자들이” 앞에 “이후에 그들이(모압과 암몬 사람들) 돌아가 그들을 위해 *mrz hn*을 준비하였고”를 삽입하여 읽는다. 우선 Targum Pseudo-Jonathan에서는 마르제악을 장소로, Sifre Numbers에서는 잔치로 이해한 것 같다.<sup>59)</sup> 한편 시 106:28의 히브리 본문(MT)은 민 25:2의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를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zib hē met hm*) 먹어서”로 표현하고 있다. 둘을 비교하면 “그들의 신”과 “죽은 자”는 평행하다. 따라서 “죽은 자”(“*met hm*”)가 생명 없는 이교의 우상을 가리키는

55) 참고문헌을 위해 Lewis, *Cults of the Dead*, 91. n. 49를 보라.

56) Bryan, “Texts relating to the *Marzeah*,” 170-71.

57) *Ibid.*, 193.

58) *Ibid.*, 196-97.

59) 랍비 문헌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위해, Bryan, “Texts relating to the *Marzeah*,” 74-112를 보라.

지<sup>60)</sup> 아니면 “죽은 조상들”을 가리키는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파르디는 랍비적 마르제악의 개념은 순전히 이방 신과 연관되어 있는 술 마시는 장소였다고 설명한다.<sup>61)</sup> 이에 반대하는 루이스는 시 106:28의 경우를 근거 삼아 “죽은 자”를 단지 우상으로 이해했다라면, “죽은 자”보다 다른 단어가 적합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cf. 시 95:6; 97:6) 이 단어를 “죽은 조상”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그는 민 25:2에서 바알브올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란 다름 아닌 모압사람들의 신격화된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주장한다.<sup>62)</sup> 루이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일찍이 포우프가 지적했듯이,<sup>63)</sup> 바알브올의 축제는 상제례와 연관된 잔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팽팽하게 맞서 있다.

### 3.7. 마데바 지도(주후 6세기경)<sup>64)</sup>

마르제악에 관한 증거 중 가장 늦은 증거 본문은 로마 시대 요단 동부 마데바에서 발견된 지도이다. 이 지도는 현존하는 유일한 고대 팔레스틴 지도인데, 그 안에 *BĒTOMARZEAH Ê K(AI) MAIUMAS*란 구절이 나온다. 첫 단어는 마르제악 제도와 언제나 상관 있었던 “집”(bêt)을 언급한다. 첫 구절은 렘 16:5(*bêt marzeah*)를 즉시 연상케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르제악을 *maiouamas* 잔치와 병렬시킴으로서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이런 연결은 랍비 문헌에도 나타난다. *Maiumas*란 풍요와 번식을 기리기 위해 성적으로 방탕한 행위를 제의 중에 거행하는 축제를 말한다.<sup>65)</sup> 이 예식과 마르제악을 등치시킨 이유는 종교적 혼합을 음란한 행위로 비유했던 구약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66)</sup>

### 3.8. 마르제악의 주요 특성들

이제껏 나열한 마르제악 증거 본문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 몇 가지 특성을 간추릴 수가 있다.

- 1) 마르제악 제도는 하나의 종교적 사회적 조직으로서 회원(우가릿 *mt.mrzh*; 페

60) 이는 Bryan의 주장이다(“Texts relating to the Marzeah,” 88-89).

61) Pardee, “*Mrzihu, Kispu, and the Ugaritic Funerary Cult*,” 279, n. 7.

62) Lewis, *Cults of the Dead*, 167.

63) Pope, *Song of Songs*, AB (Garden City, NY: Doubleday, 1977) 217.

64) 참조. V. Gold, “The Mosaic Map of Madeba,” *The Biblical Archeologist* 21 (1958) 50-71.

65) R. M. Good, “The Carthaginian *MAYUMAS*,” *Studi Epigrafici e Linguistici sul Vicino Oriente Antico* (=SEL) 3 (1986) 99-114. 안디옥의 이 축제는 Dionysos와 Aphrodite의 주신제(a bacchanalian feast)였고 카르타고의 이 축제는 아마누스인의 여신인 Tanit과 그 배우자인 Baal의 축제였으며 모종의 성행위가 연루되었었다.

66) Pardee, “*Mrzihu, Kispu, and the Ugaritic Funerary Cult*,” 279, n. 7.

니키아 *bny mrz h*; 아랍어 *hbry' mrz h*)을 보유하고 있고 조직을 주관하는 장(우가릿 *rb. mrz h*; 아랍어 *rb. mrz h*; 팔미라-헬라이어 *sumposiarche*)이 있어서 벌금을 징수하거나 다른 관장업무를 보았다 (KTU 3.9; 나바티아; 팔미라).

2) 마르제악은 때로 특별히 마련된 회합장소로서의 집이 있었고, 그 집은 일반 가옥의 일부이거나 따로 지어진 것일 수도 있다(KTU 3.9). 운영을 위해 포도원도 소유했고 재산권은 회원에게 영구 상속되었다(RS 15.70; 15.88; 18.01). 때로는 마르제악이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트랜스 요르단).

3) 마르제악에서는 술을 마시는 일이 기본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과음하는 경우가 많았다(RS 18.01; KTU 1.114; 암 6:7; 페니키아 청동 대접; 팔미라; 마데바 지도). 모임의 동기는 불확실하지만, 단순한 친목은 아니었고 추구하는 과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간혹 죽은 자를 위한 제의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상제례와의 연관성 속에 모이기도 하였다 (KTU 1.21; 램 16:5; cf. 나바티아의 신격화된 조상; 엘레판틴; 랍비 문헌).

4) 마르제악은 수호신을 섬겼고(RS 15.70);, 회원의 자격은 상당히 부유한 지도 계층(예를 들어, 왕, 제사장, 장군, 정치인, 상인 등등)에게 국한한 것이었으며(RS 14.161 암 6:7), 왕도 그들의 활동과 존재를 공인할 정도로 정치적 세력이 대단했다(RS 15.70; 18.01).

5) (우가릿의 경우) 마르제악은 각 도시 국가(성읍)에 적어도 하나씩은 있었다(RS 18.01).

6) 마르제악은 정기적으로 모였으며, 며칠씩 잔치를 계속하였다(KAI 60.1; 팔미라).

한편, 이상의 특성들은 마르제악 제도가 한 가지 이상을 가리켰으며, 또 삼천여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존속되었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인종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마르제악이 주변 문화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sup>67)</sup> 그러므로, 마르제악 제도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되거나 다양한 구조로 발전하면서 해당 사회 속에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은 마르제악 제도가 팔미라의 어떤 제사장 집단에 의해 관리된 점,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서 양도처리가 가능한 동산처럼 사용되었던 용례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제악이란 용어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 테두리는 항상 일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67) Greenfield, "The *Marzeah* as a Social Institution," 454.

#### 4. 결론

위에서 정리한 특성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이 제도의 실체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 제도의 조직과 특징적 활동이 중세 시대의 길드와 유사하다는 발견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목적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술 먹는 클럽이라고 보기에는 조직의 결속이 강하고 특정한 집(클럽 하우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기도 하며, 조직의 유지를 위한 포도원이나 토지가 딸려 있고 상류 계층의 사람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었으리라는 특징들은 이 제도를 고대 사회 속에서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고대의 정치성을 띤 당파 같은 것으로서만 규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반면, 간혹 등장하는 상제례와의 연관성을 어쩌다가 일어난 정황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비중 있고 주요한 증거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KTU 1.21에서 죽은 조상의 혼백(*rpum*)을 불러내어 초대하는 일과 마르제악의 집을 상가로 이해하는 성서적 증거(렘 16:5)와 나바티안 비문에서 신격화된 선왕 오보다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임으로서의 마르제악의 모습들은 이 제도와 사자제의 관련성 여부를 강하게 제기한다.

마르제악 제도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 첫째로, 마르제악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 만들어서 운영되는 일종의 상조회로서 주로 술잔치를 여는 일에 관여한다. 둘째, 상제례와는 무관하고 단지 술 마시는 클럽이다. 셋째, 일차적으로는 술 마시는 것이 주목적인 조직이며 간혹 회원의 장례와 관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공통된 의견은 마르제악 제도가 항상 과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회원들이 모여 과음을 하는 목적-제의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혹은 둘 다이든지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목적 이해에 관하여, 학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증거 자료의 불충분, 언어학적 연구에만 집착하는 방법론적 협소성, 그리고 상제례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정의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필자는 제의적 모임으로 보는 첫째 견해를 지지하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sup>68)</sup> 구체적인 내용 전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필자가 취한 정의에 의하면, 마르제악 제도는 죽은 고대의 영웅을 신처럼 혹은

68) 참조. 우택주, "The *Marzeah* Institution and Rites for the Dead," 6-54.

신을 추모하는 고대 사회의 지도자들(특히, 무인들이 중심이 되는) 중심의 형제단으로서, 정기적으로 추모제(혹은 기념제)를 열어 술에 만취하도록 마시는 제의적 행위를 통해 숭배 대상인 고대의 영웅 혹은 수호신과의 합일을 꾀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결사조직(confraternity)이다.<sup>69)</sup> 이 정의가 얼마나 증거본문을 포용하며 또, 성서 본문과의 연관 속에 어떤 설득력을 갖는지는 다음 기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쾰러-바움가르텐의 히브리어-아람어 사전은 이 단어를 “술잔치를 대동한 제의적 축제”<sup>70)</sup>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논의로 보아 이것은 과거의 불충분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현재 암 4:1-2,<sup>71)</sup> 사 28:1-6,<sup>72)</sup> 겔 8:7-13<sup>73)</sup> 등에서 마르제악의 증거를 발견해내고 있는데, 필자 역시 호 7장과 28:9-29에서 마르제악의 흔적을 발견하고 해석한 바 있다.<sup>74)</sup> 이렇게 보면 마르제악은 늦어도 주전 8세기에는 그 윤곽이 드러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로 볼 수 있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연설 속에 피상적인-현대의 독자에게-언급만으로도 고대의 독자가 손쉽게 인식하였던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중심으로 지배 계층이 어떤 행동 양식을 취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이와 상관하여 선포된 저 예언들의 사회적 자리 매김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 바로 그 바탕 위에서만 저 예언의 말씀들은 보다 충분한 해석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69) 예를 들면, 17세기 영국에서 발전하고 현재 미국에 널리 퍼진 프리메이슨 조합(Freemasonry)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원래 성당 건축가와 석수들 길드에서 발전하였는데 도덕 자선 범 준수 정신을 구호로 삼은 비밀결사체로 발전하였고, 일종의 종교적 요소가 있으며, 고대의 형제 기사단과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 (참조. *Encyclopedia Britanica* 1999, s.v. "Freemasonry"). 이 조직이 사자제의로서의 마르제악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이는 N. K. Gottwald이다(구두).

70) L. Kö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rev. by W. Baumgartner and J. J. Stamm (Leiden: E. J. Brill, 1995) vol. II., s.v. "מרצה marzeah."

71) H. M. Barstad,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SVT 34 (Leiden: E. J. Brill, 1984).

72) B. A. Asen, "The Garlands of Ephraim: Isaiah 28:1-6 and the MARZĒAH," *JOT* 71 (1996) 73-87.

73) S. Ackerman, "A *Marzeah* in Ezekiel 8:7-13," *Harvard Theological Review* 82 (1989) 267-81.

74) 우택주, "The *Marzeah* institution and Rites for the Dead," 174-250. 필자는 한편 사 5:11-23의 구절 역시 마르제악 제도와 상관 있는 본문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밝힐 것이다.